

# 문 대통령, 野 4당 대표 회동... '협치' 시동

숨겨왔던 임기 첫날

“국회 존중·야당과 소통  
국정 동반자 자세로 임할 것”  
국회의사당서 취임 선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첫날부터 야당 대표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등 '협치'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당과도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국정 동반자의 자세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안보·한미동맹 이런 부분을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협력해 주신다면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은 야당에도 늘 브리핑이 되도록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제1야당이시니까 제가 간곡하게 협조를 청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열 대표를 만나 “정권교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정권교체를 바라는 마음이나 정권교체 이후 통합하는 면에서는 안 후보나 저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른 길을 걷고 있지만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협력을 바라지지 않는다”며 “말로만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야당 지도부를 함께 만나겠으며 국민의당의 동지적 자세와 협력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박 대표가 “거명 인사를 보니 아주 좋은 분이 있어 신선하다”라고 말하자 “제가 대량평, 대통령의 자세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유 후보님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주셨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위로드린다”며 “그러나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을 잘 제시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는 길게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국민께 많은 희망을 주셨고, 그런 희망을 키워나가는 정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정의당이 이번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가치와 정책 지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성공했고 정의당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부인 김정숙 여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후보 시절 슬로

건을 남겼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로텐더울에서 취임 선서 행사를 가졌다. 간소하게 진행된 임식 행사에는 여야 대표 등 300여명만 참석했으며, 국회 앞마당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시민들도 취임 선서 행사를 함께 지켜봤다.

한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저 시설이 입주에 맞는 여건이 아니어서 시설이 정비될 때까지 대통령은 흥은동 사저에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3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청소년 선택도 '문재인 대통령'

YMCA, 19세 미만 대상 모의대선

전체 5만1715표 중 2만245표 획득...39% 1위

심상정 대구·울산·제주·강원서 1위...3%차 2위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선택도 '문재인'이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제19대 대선 투표가 열렸던 지난 9일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른 '청소년이 뽑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5만1715표 중 2만245표를 얻어 39.1%의 득표율로 '청소년이 선택한 대통령'에 선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6% 득표율을 기록, 문 대통령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심 후보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포함해 울산, 제주, 강원 등 4곳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1등을 차지 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모의투표에선 2.9%의 득표율로 5위에 그

쳤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10.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9.3%의 득표율로 각각 3위와 4위 기록했다.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실제선거와 다른 표심을 보였다. 광주 모의투표 결과는 2413명의 청소년들이 투표인단에 참여해 문재인 대통령이 1218명의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고 724표를 얻은 심상정 후보가 2위, 뒤이어 안철수(264표),

유승민(1154표), 홍준표(15표) 후보 순이었다.

전남에서도 진행된 모의투표에는 2652명이 참가해 1294표의 문재인 대통령 1위를 기록했고 심상정(800표), 안철수(259표), 유승민(210표), 홍준표(25표) 후보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지난달 1일부터 5월9일까지 온라인(www.18vote.net)을 통해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전국의 6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선거인단에 신청했다. 청소년들은 지난 4일과 5일 열린 사전투표와 9일에 진행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의투표에 5만17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86%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번주 안에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소년 뽑은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YMCA 문기전 사무총장은 “9일에 열린 조기 대선은 광장에 나온 청소년들의 촛불집회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모의투표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표심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투표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만 18세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울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지치지 않는 분도 국민”이라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광화문 시대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요약.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 내딛는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 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다. 지금 제 가슴은 한반도 경협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솔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했던 나라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이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주셨다.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삼기겠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구시대적 잘못된 관행과 사고방식 결별하겠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준비를 마치는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잠고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려 마주치는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배

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 자국 국방력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보수 진보 갈등 끝내야 한다. 통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동시 제별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거듭 말씀드린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남겼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시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다.

###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시: 2017. 5. 9(화) 오후7시
- 장소: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시: 2017. 5. 16(화) 오후7시
- 장소: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사주+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가임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액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차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 건물 2,000㎡ 매 32억원
-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 건물 2,100㎡ 매 36억원
- 치명동 5층 상가건물 대 360㎡ 건물 1,150㎡ 매 25억원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 490㎡ 건물 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 890㎡ 건물 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임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상가건물 대 440㎡ 건물 1,500㎡ 매 25억
- 쌍암동 4층 상가건물 대 610㎡ 건물 1,100㎡ 매 29억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임점)
- 신기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 308㎡ 건물 861㎡ 매 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 385㎡ 건물 500㎡ 매 13억

토지

- 용전동 생선복지, 대로점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선복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선복지 창고용지 도로점 990㎡ 5억원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91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적장 적합)
- 광산구 대신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동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 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지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 태광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 200㎡ 매 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 471㎡ 매 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 468㎡ 매 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 신기동 3층 상가건물 대 503㎡ 매 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 1,050㎡ 매 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 336㎡ 매 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 397㎡ 매 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 120㎡ 매 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 주택

-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 180㎡ 매 8억원(보6,000 월370 포함)
-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 360㎡ 매 8.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 310㎡ 매 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 250㎡ 매 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 6,150㎡ 매 58억원
-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 48,600㎡ 매 6.6억원
- 신기동 생선복지 담 745㎡ 매 3.65억원
-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 770㎡ 매 23억원
-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 3,070㎡ 매 6.5억원
- 산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완료 대 290㎡ 매 3.3억원
-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 2,115㎡ 매 2.8억원
- 매곡동 상가분양권 1층 주출입구코너 71㎡ 매 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문의 010-2572-4663